폐허 위에 피어난 새로운 시간 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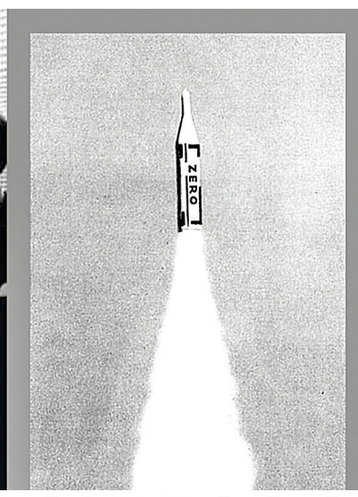


김원숙의
불교와 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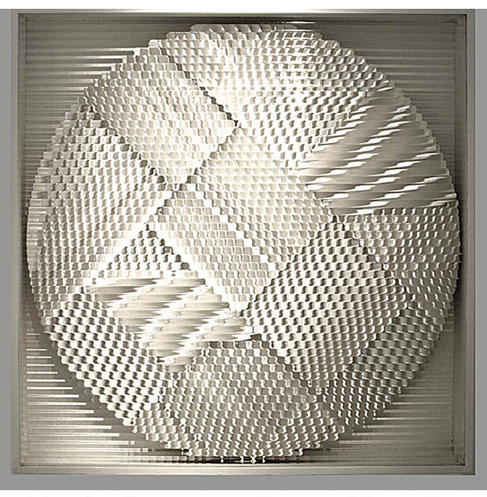
⑳ 제로 그룹



(좌로부터) 귄터 워커, 오토 피네, 쿠사마 야요이 & 하인츠 마크



〈로켓 Rocket〉, 일러스트, 제로 매거진 ZERO 3, 하인츠 마크, 1961년 3월


〈하얀 빛의 발전기 White Light Dynamo〉, 하인츠 마크, 목재에 알루미늄, 150x150x30 cm, 1964


작업하는 이브 클라인

시적(詩的) 발화에서 형용모순(形容矛盾, Oxymoron)은 흔히 어떤 심상을 함축적이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 '소리 없는 아우성', '달콤한 슬픔(Sweet sorrow)' 처럼 서로 어울려 나란히 놓이기 어려운 어휘들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단순한 서사로는 얻을 수 없는 극적 긴장을 불러 일으킨다.

존재하지 않는 것, 즉 '무(無)'는 존재하는가? 이것은 한편으로 존재론적 질문이기도 하며, 수사적으로는 형용모순에 해당한다. 추상적 사유는 언어를 매개로 하는 것이기에 언어의 '실용적' 용도에서는 형용모순은 그것 자체가 난제다.

수학에서 영(零, Zero)의 개념도 이와 유사하다. 통상적으로 수(數)는 존재하는 사물의 수 혹은 양을 표현하기 위한 기호 체계인 반면, 영은 존재하지 않은 상태, 혹은 그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다. 영에 대한 서술 또한 기본적으로 형용모순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영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데는 '없는 것인데 있다'와 같은 본질적 모순 어법이 개입할 수 밖에 없다.

고대로부터 유럽 그리스-로마 문명에서는 수학이 발달했으나, 영의 개념을 유럽보다 오래 전에 앞서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수용한 것은 유럽이 아닌 고대 바빌로니아, 인도, 중국과 같은 비유럽 문명권이었다. 아마도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서양의 정신 문명은 사변과 논증을 통해 진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던 반면, 동양의 고대 문명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와 통찰에 있어 형식 논리와 논증을 넘어선 그 어떤 직관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시와 마찬가지로 조형 예술에 있어서도 창조는 어떤 모순 속에서 비로소 싹을 틔우고 일깨워지는, 논리와 이성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특질을 지녔다. '무'는 존재의 영은 단순하고 절대적인 허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가능성을 내포한 하나의 디나미스(dynamis)이다.

"제로는 침묵이다. 제로는 시작이다. 제로는 둥글다. 제로는 돈다. 제로는 달이다. 태양은 제로이다. 제로는 하얗다. 사막은 제로. 머리 위의 하늘은 제로. 밤" - 하인츠 마크, 오토 피네, 귄터 워커의 시 중에서 발췌, 1963.

2차 세계대전 직후 독일 뒤셀도르프의 두 젊은 예술가 하인츠 마크(Heinz Mack, 1931-), 오토 피네(Otto Piene, 1928-2014)는 시대가 결박한 기존의 타성과 완벽한 결별을 고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출발하는 예술을 꿈꿨다. 전쟁은 패배한 독일, 이탈리아를 파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승전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조차 휘청거리게 했다. 당시 많은 예술가들은 피폐한 유럽을 버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의 예술을 일으켜 세웠지만, 유럽의 문화와 예술은 새로운 창조적 동기를 상실한 채 소진되고 고갈되어 갔다. 하인츠 마크와 오토 피네가 'Zero'라고 명명한 이 제로 그룹(Groupe Zero)의 예술 운동은 짧은 시간에 유럽 예술가들의 큰 공감을 불러 일으켰고, 머잖아 전 세계적 예술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당시 미국 미술은 잭슨 폴록으로 대표되는 추상표현주의가 지배적이었다면, 유럽의 미술계는 아르 앙포르멜이 전후의 새로운 미술사조를 이끌던 때였다. 그러나 제로 그룹은 추상표현주의나 앙포르멜로부터 거리를 두며 시작되었다. 제로 운동에 가담한 젊은 예술가들의 시선으로 볼 때, 당시 앙포르멜이나 추상표현주의는 작가의 개인적 정념이 과도한 이유로 보편적 공감을 이끌어 내기에는 부족했다. 지나친 주관적 정념의 표현을 제거하면서 시작된 제로의 미술 운동은 조형 예술과 시각 예술의 근본을 다시 반추하고, 무엇이 진정 본질적인 요소인가 하는 질문에 천착했다. 그들이 도달한 결론은 빛과 공간, 그리고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시간의 흐름이었다.

작품은 작가의 손끝을 떠난 순간 이후로 작품 그 자체가 이야기를 한다. 모든 조형 예술의 결과물은 작가의 개인적 주관성과 별개로 존재하는 독립된 생명체이다. 그것은 빛 아래 반짝이거나, 한편으로는 어둠을 던져준다. 소재의 특성, 재질 그리고 그것이 공간 속에 발하는 존재감, 그 움직임, 바로 이것이 제로 그룹의 작가들이 추구했던 새로운 예술이었다.

제로 그룹의 작품 세계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소재, 색채, 빛, 움직임, 공간, 연속성 등이다. 제로 운동의 주창자 중 한 사람인 하인츠 마크는 이러한 핵심적 요인들을 작품에 구현하기 위해서 그 당시까지는 작품의 소재로서는 생소했던 재료인 알루미늄을 주로 사용하였다. 반짝이는 금속성의 하일라이트와 어두운 음영이 일으키는 움직임은 감상자로 하여금 미묘한 착시를 느끼게 하고, 관찰자의 위치와 주변 채광에 따라 변하는 빛의 산란은 미묘한 공간감과 시간적 흐름의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색채가 연출하는 미적 심상을 중시했던 제로 그룹의 예술가들은 여러 가지 색상을 하나의 작품에 사용하는 것을 피했다. 한 작품에서 다양한 색상의 혼재로 인해 야기되는 이미지는 음영의 효과가 자아내는 순수한 공간감과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의 작품에 순수한 단일 색상을 사용하는 모노크롬 작업이 그들의 특징이다. 블루의 예술가로 잘 알려진 이브 끌랭(Yves Klein, 1928-1962) 또한 제로 그룹의 일원이었다.

제로 그룹은 명시적 강령이나 정규적인 조직을 가진 단체는 아니었다. 거기에는 회장도, 리더도 비서도 없었으며, 심지어 인증받은 회원도 없었다. 오토 피네의 말에 따르면, 제로 그룹에는 뜻을 같이 하는 예술가들의 인간적 관계가 존재하며, 서로 다른 개인의 예술적 관계가 존재할 따름이었다. 새로운 시대, 새 예술을 추구하려던 이러

주관의 제거가 '제로' 모토
조형 예술의 새 해석 지평
'불립 문자'의 경지와 닿아

한 움직임을 일종의 그릇에 비유하자면, 제로 운동은 치밀하고 단단한 경질 도자기라기보다는 공기가 드나들고 습기를 머금을 수 있는 다공성의 토기와 같았다.

당시 독일은 전쟁으로 인해 미술 작품을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미술관 시스템이 대부분 파괴되었기에, 그들은 '저녁의 팝업 전시'라는 그들만의 독특한 전시 방법을 고안했다. 전시 전문가들의 협력 아래 체계적인 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미술관에서 전시를 갖는 형식이 아니라, 작가의 스튜디오, 바 등 임의의 공간에서 자신들만의 노력으로 일회성으로 실시되는 전시였다. 그러나 그들이 들고 나온 미학적 이념은 당시 유럽의 많은 작가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이내 예술세계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확산되었다.

제로 그룹의 핵심적 일원 중 하나였던 귄터 워커(Günther Uecker, 1930-)는 "즉각적 체험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참여할 때 얻어진다. 예술가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예술 작품이 개인성에 제한되기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제로의 미술 운동에 참여한 많은 예술가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독특한 예술 세계를 가진 사람들이었으나, 근본적으로 제로 운동이 제시하는 예술적 창조의 동기와 미적 가치에 공감하여 기꺼이 일종의 범세계적인 콜라보, 즉 공동 작업과 협력 과정에 참여했다. 프랑스 누보 레알리즘의 지도적 인물이었던 아르망, 이브 끌랭을 비롯해서 이탈리아 아지무스 그룹의 피에르 만초니, 루치오 폰타나 등과 같은 작가들이 중심적 인물로 가담했다. 미국 뉴욕에서 활동했던 쿠사마 야요이도 개별적으로 참여했으며, 일본 현대 미술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구타이 그룹 또한 제로의 미술 운동에 깊은 공감을 가졌다.

하인츠 마크는 제로 그룹의 매거진에 우주 로켓이 발사되는 장면의 일러스트레이션을 게재했는데, 이를 통해서 그는 제로 운동의 동기를 극명하게 이야기한다. 우주로 발사되는 로켓은 무수한 실험과 실패로 인한 모든 희생의 역사를 담고 있지만, 마지막 카운트 다운은 9로부터 시작해서 제로로 향한다. 제로의 시점에서 저 거대한 금속의 덩어리는 화염과 연무를 뿌리며 우주로 날아간다. 제로는 지난 시간이 남겨준 폐허와 미래의 희망이 공존하는, 어떤 미완의 시점이기도 하며 창조와 파괴가 공존하는 불확정의 지대이기도 하다.

오토 피네의 말에 따르면, 제로는 허무주의의 표현은 아니다. 제로 운동은 흔히 20세기 초반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이었던 다다이즘과 비교된다. 어떤 이들은 제로 운동을 일컬어 '신 아방가르드'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제로 운동은 다다이즘과 마찬가지로 폐허 위에 재건되는 예술을 지향한다. 그러나 다다이즘이 허무에 무게가 실린 반면, 제로 운동은 허무의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가능성에 중점을 두었다. 피네는 제로를 '과거의 상태가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지점, 옛 것과 새로운 것이 공통의 근거 위에서 양립할 수 없는 부조화의 지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침묵과 순수한 가능성의 지대를 뜻하는 말'로 생각했다.

서구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의 상당수가 도가의 노장사상, 선불교 등 동양 사상의 정신성을 그들의 작품 세계에 수용하여 예술 작업의 창조적 동기로 삼았다. 제로 운동의 참여자들이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추구한 미적 가치나 예술관은 불교의 가르침과 퍽 많이 닮아 있다. 개별 예술가들의 내적 정념이나 주관적인 자기 표현을 '무(無)'로 환원하는 것이 제로 그룹의 출발점이었다. 그들은 개아(個我)의 완전한 부정을 통해 생겨나는 빛과 시공간을 예술의 본질로 생각했다.

붓다는 "사리불이여, 존재는 공(空, Void, Nihil, Zero)과 다르지 않고 공은 존재와 다르지 않다. 존재가 공이요 공한 것이 바로 존재"라 일렀다. 단지 '색은 물질적 현상이며, 공은 실체가 없음'을 뜻함을 너머, 나아가 제로의 공함도 본질적 공함인 것이다.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이다. 그것은 '없음'이나 '허무'가 아니다. 텅 비었으되 그 텅 빔 속에 끊임없이 생성되는 꽉 찬 신묘의 세계다. 그것은 경전의 강술이나 언어 문자의 수단에 의하지 않고, 오직 체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깨달음의 세계다. 다만 이는 '교외별전 불립문자(敎外別傳不立文字)'로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는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내용으로 충만한 최상의 주문이요, 무지함과 몽매함을 밝혀주는 광명의 주문이며, 더 이상을 생각할 수 없는 최고의 주문이며, 모든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본연의 진리로다. 반야바라밀다의 이 같은 위대함을 비밀한 뜻으로 표현하는 진언(眞言)이 있으니 그 진언은 다음과 같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故知 般若波羅蜜多 是大神呪 是大明呪 是無上呪 是無等等呪 能除一切苦 眞實不虛

고설반야바라밀다주 즉설주왈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故說般若波羅蜜多呪 卽說呪曰 揭帝揭帝 波羅揭帝 波羅僧揭帝 菩提娑婆訶

'반야심경(般若心經)' 중에서 〈미술학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아나빠나사띠숫타)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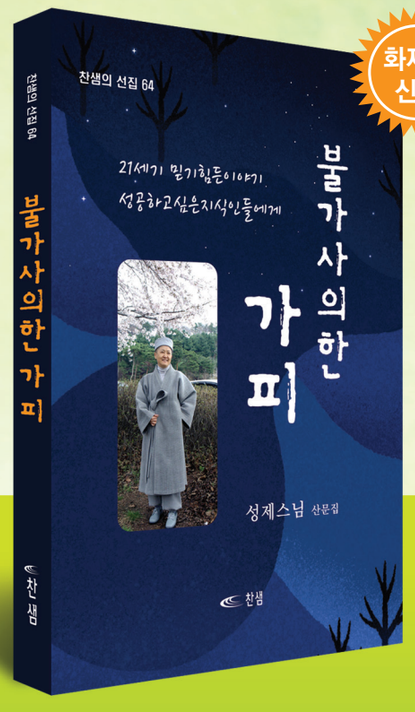
제6차크라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일행삼매 연구소(소장 : 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찬샘의 선집 64
21세기 믿기힘든이야기
성공하고싶은 지식인들에게
불가사의한 가피
화제의 신간


성제스님 산문집
256쪽 / 150×227mm / 값 10,000원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처 : 성제스님 010-7406-9788
새마을금고 : 9003-2212-8655-3 (예금주 : 윤순례)
명상과 기도를 통하여 기를 얻고 치료하는 영험담이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이며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빛이 되어 길이 되고 방편 되어 청량제로 시원하게 메마른 가슴을 촉촉이 적셔준다. 21세기 믿기 힘든 이야기. 성공하고 싶은 지식인들에게 들려주는 영험한 체험기이다.